



이후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독립군의 항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였으며, 1940년 중경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기에 이르렀다. 일곱째, 일제의 무단통치를 붕괴시키고 이른바 문화정치로 전환케 하였다.

경술국치 이래 헌병경찰을 앞세워 공포적 통치를 해 온 일제는 거족적인 3·1 독립운동에 놀라 기존의 무단통치로는 식민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문화정치로 전환하였다. 문화정치란, 외형상으로는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등 식민지 통치의 완화를 표방한 통치방식이었다. 비록 이는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회유하고 더욱 교묘하게 탄압하기 위한 고등의 기만적 술책에 불과한 것이나, 3·1 독립운동으로 일제의 무단통치 기반을 붕괴시키고 쟁취해 낸 것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. 3·1 독립운동은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지배하던 피압박 약소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제국주의에 항거한 선구적인 투쟁이었다. 따라서 다른 피압박 약소민족의 해방투쟁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 할 수 있다. 3·1 독립운동은 중국의 5·4 운동, 인도의 비폭력 비협조운동, 베트남의 독립운동, 필리핀 이집트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.

(*국가보훈처, '3·1절 계기 교육자료집' 발체)

3·1절을 계기로 전국의 많은 단체들에 의해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치러진다. 본회는 3·1절 기념식 정부행사(오전)에 많은 광복회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광복회장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, 자체행사로 3·1 독립운동희생선열추념식(오후)을 가진다.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광복회 각시도지부와 함께 자체 기념행사를 갖는다.